

일본 35개 제과제빵업체가 꼽은 작년 히트 상품과 올해 기대 상품

〈 정리 / 허미경 jpyong@mbakery.co.kr 〉

일본 <빵뉴스사>가 주요 양산업체와 베이커리숍 35개를 대상으로 2001년 좋은 반응을 얻은 히트 상품과 2002년 기대 상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점포 및 회사별로 1년간 판매된 제품 가운데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인 제품을 조사한 것으로 순위별로 'Best 5'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업체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한해동안 공통적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은 메론빵, 카레빵, 단팥빵, 크림빵 등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계절이나 다른 특수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판매를 보여 명실상부한 일본 대표제품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조사 대상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양산업체는 식빵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제품의 가격도 보통 100엔에서 170엔 정도의 저가 제품으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제품이 많았다. 또한, 고베야(神戸屋)의 햄과 마요네즈를 이용한 조리 빵 '햄마요', 구지켄의 '100엔 버거', 이토오(伊藤)제빵의 '카리 크림치즈빵' 등은 양산빵 가운데서도 개성

2001년 히트상품

양산업체

일랑(日糧)제빵 - 브랑제식빵(180엔), 백석(白石)식품공업 - 딜리셔스빈즈롤(100엔), 유아사·후나쇼코 - 폭신폭신 롤(120엔), 이토오(伊藤)제빵 - 핫케이크(80엔), 키무라야(木村屋)총본점 - 단팥빵(100엔), 다이이찌야(第一屋)제빵 - 포켓몬·건강 초코 크루아상, 암마자키(山崎)제빵 - 식빵(170엔), 부도제빵 - 식빵(170엔), 후지빵 - 식빵(180엔), 진진당(進進堂)제빵 - 알파식빵(180엔), 오이시스 - 촉촉한 브레드(180엔), 니시가와식품 - 후라와(100엔), 고베야(神戸屋) - 탕종(170엔), 쿠시켄 - 올트라메론(130엔), 오카노(岡野)식품산업 - 메이플 푸딩빵(140엔)

베이커리숍

타카키베이커리 - 스위트 데니시 브레드(280엔), 데이지 - 사타안다카(50엔), 사프랑 - 긴 빵(380엔), 양텐도우 - 돌에 구운 식빵(260, 350엔), 안데르센 - 발야현미빵(280엔), 리틀마에이드 - 영국빵(220엔), 썬메리 - 아이토와누 브레드(260엔), 덴마크브로드 - 눈부신 메론빵(100엔), 낙마루야(中村屋) - 카레빵(150엔), 본테 - 크로켓버거(100엔), 몽타보 - 음옥구도(800엔), 고베야(神戸屋)레스토랑 - 고베야(神戸屋)스페셜(400엔), 상제르망 - 웨슬블링(270엔), 빵스테이지 · 프롤로그 - 애플 커스터드(220엔), 북구도쿄 - 프랑크투르티야(180엔), 품파도로 - 프랑스 단팥빵(100엔), 봉오하시 - 카스크토(250엔), 야타로 - 메론빵(130엔), 이스즈베이커리 - 베이컨 페퍼(180엔), 동크 - 콘빵(100엔)



베이커리숍에서 꼽은 2002년 기대상품

쌀을 이용한 빵, 천연발효빵,
푸딩빵, 아침식사용 제품,
유기농 · 천연소재 빵, 건강빵 등

있는 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얻었다.

이에 반해 베이커리숍의 경우는 각 점포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경우나 점포만의 특징을 살린 제품들의 판매가 활발했다.

그 예로 낙마루야(中村屋)의 호밀빵, 타카키베이커리에서 개발한 쌀 식빵 등이 있었으며 안데르센과 데이지의 경우 발야 현미빵, 사타안다카 등의 신상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조사결과 베이커리숍은 전반적으로 직접 만든 필링이나 토픽을 사용한 제품이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기대상품으로는 상제르망, 봉오하시 등의 여러 베이커리숍에서 쌀을 이용한 제품을 꼽았다. 또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건강을 고려한 제품에 기대를 걸고 준비중인 점포도 몇몇 있었다. 베이커리숍은 공통적으로 2002년은 효율도를 고려한 상품보다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양산업체는 올해도 작년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 제품 위주로 생산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2002년 업계 경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시장규모의 변동에 비해 각 점포간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보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 업체의 노력이 숙제라고 응답했다. ■